

# 자가격리 면제 첫 주말 인천공항 승객 17% ↑ “일상회복 기대”

25~27일까지 4만6926명...전주대비 16.84%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게 돼 일상회복 기대”

지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자가격리 면제되면서 지난 25일 첫 주말을 앞둔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한 승객들이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와 달리 승객이 증가한 모습이 역력했다.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에 들뜬 아이들은 아버지가 밀어주는 카트에 올라타며 천진난만한 모습이었고, 바쁜 출국일정에 쫓겨 요란스레 캐리어(여행용 가방)를 끄는 승객들은 마치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었다.

이날 몽골로 출국하는 20대 여성 승객은 “코로나19로 인한 7일간의 자가격리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다”며 한국으로 되돌아올 때 마음 편히 올 수 있어 앞으로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말했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7일간의 자

가격리 면제 시행 첫 주말을 앞둔 이날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4만6926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주인 지난 18~20일 4만162명보다 16.84%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도 승객증가에 대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한창이다.

공사는 자가격리면제가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약 2개월간 공항 시설 전반의 대대적인 시설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등 여객용 시설과 활주로, 각종 기반시설 및 플랫폼·수하물시설까지 포함되며 동원되는 인력은 일평균 800여명과 200여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유리창 청소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미화원들은 2m는 족히 돼보이는 긴 막대 걸레로 유리창 곳곳을 깨끗하게 닦았다.

최병주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환경미화 유리조 사원은 “하루 200장의 유리를 닦고 있

다”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고비를 넘어 승객이 예년처럼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층 입국장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입국자수는 8188명으로 예측됐다.

항공기에 내린 승객들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입국심사를 마친 후 입국장에 마중 나온 가족들과 포옹하며 재회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강화된 입국조치로 인해 입국 즉시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은 “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한다”며 “자가격리가 해제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로 인해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가족과 만날 시간도 줄어 부담스러웠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접종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파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온 입국자는 오는 31일까지 국내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존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미얀마에 베트남을 더한 3개국 입국자는 접종을 완료했다더라도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입국자는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을 말한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실드, 코백스,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서선욱기자



## 호텔업계 “호캉스 큰손 ‘MZ세대’ 잡아라”

바디프로필·헬스케어·미닝아웃 등 MZ니즈 반영 패키지

MZ세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대신 ‘호캉스’를 즐기는 사례가 늘면서 호텔업계 ‘큰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국내 호텔들은 봄 시즌을 맞아 MZ세대들의 취향을 겨냥한 패키지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MZ들의 니즈를 반영해 MBTI, 바디 프로필, 헬스케어, 이너뷰티 등 다양한 소재로 패키지를 만들었다. 최근 소비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미닝아웃까지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 패키지가 다양하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자신의 MBTI에 맞춰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이색 패키지를 출시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한 ‘MBTI 패키지’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하는 E형(외향형) 상품과 호텔에서 휴식과 미식을 동시에 누리는 I형(내향형)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E형 패키지는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카트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인 루지 2회권(2매)’을 기본 혜택으로 제공해 짜릿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다.

기간에 따라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 이용권(2인)이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유이용권(2매)도 추가로 제공한다. I형 패키지는 호텔 객실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온 더 플레이트’ 디너 뷔페(성인 2인)를 만끽하면서 온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씨메르 이용권, 카바나 이용권과 함께 히말라야 솔트 족욕 프로그램 혜택을 포함해 인택트 풀장스를 누릴 수 있는 ‘봄캉스(feat.카바나)’패키지를 E형 상품으로 선보였다. I형을 위한 상품으로는 ‘이탈리안 고메 뷔장스’ 패키지를 내놨다. 봄 미식 코스를 경험할 수 있는 ‘라스칼라 스프링 런치 스페셜(제크아웃 후 1회 이용/성인 2인)과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해 ‘키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어린이 최대 2인)’를 제공한다.

안다즈 서울 강남은 바디 프로필 촬영 전문

스튜디오 ‘벨런스버튼’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리브 유어셀프 패키지’를 50객실 한정으로 선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결과를 사진에 담아내는 바디 프로필 촬영권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예약 및 투숙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50만원 상당의 촬영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호텔 피트니스에서 단독으로 온캉스(운동+바캉스)를 누릴 수 있는 ‘비 헬스, 비 세이프 패키지’를 운영중이다.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타깃으로 피트니스 공간을 최대 2인까지 총 1시간 30분 동안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시 요청 사항에 희망 시간을 기재하면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또한 후대용 러닝머신 ‘나인덱트 트레드밀’을 대여해 인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봄을 맞아 호캉스를 즐기며 이너뷰티까지 챙길 수 있도록 ‘프레쉬 모먼트 패키지’를 내놨다. 프레쉬와 협업해 스킨케어 아이템으로 구성된 프레쉬 로즈 라인 JWF 세트트를 증정한다. 또 핑크빛 하트 모양의 JW 시그니처 로즈 빵과 케이크와 함께 로즈힙 티 2잔이 준비돼 객실에서 여유롭게 봄을 느낄 수 있다. 봄 시즌 한정 판매 패키지로 오는 5월 31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미닝아웃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실천을 위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그린 스테이 패키지’를 판매한다. ‘스토조’ 친환경 텀블러 2개와 인터컨티넨탈 에코백 1개를 혜택으로 마련했다. 투숙 기간 중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 호텔 1층 그랜드 델리를 방문하면 아메리카노 2잔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슬비기자

## 한국GM, 쉐보레 초대형SUV ‘타호’ 4월부터 고객 인도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가 초대형 SUV ‘타호(TAHOE)’를 4월 중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쉐보레 국내 온라인 샵에서 사전계약을 시작한 타호는 미국에서 1994년 출시 이래 가장 많이 팔린 풀사이즈 SUV다. SUV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

SUV 풀 라인업 구축으로 한국GM 투트랙 전략 강화

객과 함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쉐보레 브랜드만의 SUV 정통성을 담아냈다.

쉐보레는 타호 출시를 통해 국산과 수입 브랜드를 통틀어 국내 최초로 소형에서 초대형을 아우르는 SUV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차박이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부터 오토와 카약, 카라반 등 새로운 레저활동까지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쉐보레는 초대형 SUV 타호의 가세로 SUV 풀 라인업을 구축해 한국지엠의 투-트랙(Two-Track) 브랜드 전략을 강화한다. 국내 생산 제품에 더해 수입 제품까지 제품 라인

업을 확대·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2·4분기 고객 인도를 앞둔 볼트EV와 볼트EUV를 포함해 2025년까지 출시되는 다수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통해 내수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높일 계획이다.

카히 카점 한국지엠주식회사 사장은 “필적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타호는 쉐보레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라며 “타호는 이미 광범위했던 쉐보레의 SUV 라인업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국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며, SUV의 궁극적인 존재감과 능력으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경험을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집 밖은 위험해”...슬기로운 집콕 돕는 편리미엄 가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편리미엄(편리함이 곧 프리미엄)’ 가전 제품의 인기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달 20일 이마트에 따르면, 편리미엄 가전으로 손꼽히는 음식물처리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의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음식물처리기가 907.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식기세척기가 45.3%, 로봇청소기가 1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안일은 가전제품에 맡기고 남은 시간은 취미활동에 보내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인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집콕 편리미엄 가전 신홍강자 ‘음식물 처리기’

바쁜 한 번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주는 음식물처리기는 편리미엄 가전 신홍강자로 급부상했다. 번거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을 확 줄여주고, 보관으로 인한 악취·세균 걱정까지 함께 잡아줘 집콕 생활 중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해준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편리미엄 가전 인기

스마트카라의 ‘스마트카라 400’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고온건조, 분쇄해 최대 90%까지 부피를 감량한다.

처리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99.9% 살균해 주는 것은 물론 원터치로 편리하게 세척까지 가능해 위생 관리가 쉽다. 또 부패를 방지하는 보관처리 기술까지 적용돼 음식물을 적정선까지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도어 개폐 방식을 원터치 방식으로 변경하고, 안전을 위한 잠금 기능인 스마트락 시스템도 도입했다.

◆설거지족 해방시켜주는 ‘식기세척기’ 이모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홈룩’ 문화가 확산되며 식기세척기는 설거지족 해방템으로 자리잡았다. 식기세척기는 설거지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살균 등 위생 기능까지 갖춰 청결한 주방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쿠쿠전자의 ‘프리미엄 6인용 식기세척기’는 세척과 건조 기능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카운터탑 식기세척기다. 기존 제품에 자동 문 열림, 송풍, UV 트리플 건조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송풍팬에서 생성되는 풍부한 바람으로 건조 성능을 극대화해 식기 표면에 남은 물때를 남기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식기를 빠르게 건조한다.

살균건조 기능을 작동하면 건조와 함께

UV살균이 진행돼 식기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말끔하게 케어해준다.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로봇 청소기’

자동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는 편리한 사용법과 더불어 노동력과 청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인기를 끌고 있다.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G10’은 22개의 센서를 탑재해 공간과 장애물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꼼꼼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자동으로 먼지비움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2in1 스마트 클린스테이션’을 도입해 편의성도 더했다. G10 클린스테이션은 짧은 먼지통로 길이와 강력한 모터로 12초 만에 빠르게 먼지통을 비워낼 수 있으며, 6모션 파펫 클리닝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제품은 사이드브러시와 메인브러시, BLDC 모터로 가벼운 입자부터 무거운 먼지까지 생생하게 파아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청소 중 카펫을 인지하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ACBU(Auto Carpet Boost Up) 기능으로 카펫을 따로 털거나 세척하는 일도 줄였다.

이 제품은 물걸레판을 탈착할 수 있고 일회용 청소포도 부착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대략 100분 정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도 포함됐다.

박남진기자